

Open-Ended

4호

[óupən-éndid]

정해진 답이 없는,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끝난 것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용어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http://yonsei.ac.kr/~ysfem> empower@yonsei.ac.kr



제9회 여성제

여성, 욕망에 입을 그린다.



여성이 여성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여자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성별을 가르침과 동시에 여자들의 영역은 검은다는 것을 가르쳤다. 너는 아프리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검은다. 너의 대륙은 검은다. 검은 것은 위험하다. 검은 것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너는 두려움을 느낀다. 움직이지 말아라.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 숲 속에 가지 마라. 검은 것에 대한 공포,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각본이 남성의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여성이 그녀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주체가 아니라 대상물이 되어버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타자에 의해 규정되고 확인되는 섹슈얼리티. 우리는 낯설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는 월경을 시작했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배우기보다는 임신의 공포를 학습했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 성교육에서 자신의 성의 아름다움을 배우기도 전에 성폭력의 공포를 학습했다. 여성의 일상을 구성하는 이러한 가부장제의 각본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채우는 것은 '욕망' 이기보다는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기도 하고, 대물림되는 공포이기도 하며, 무력감이기도 하다. 남성의 언어만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사회, 남성의 성적 실천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여성이 욕망을 말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이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의 위험 속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답은 이제까지 성폭력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성의 언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전달해야했던 과거와 현재 속에서, 여성의 몸의 경험과 욕망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언어는 아직까지 빈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의 섹슈얼리티를 말한다는 것은 '타자'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는 일이다. 그것은 타인에게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일이며, 여성의 언어가 가지는 힘은 그래서 더욱더 전복적이다.

여성, 욕망에 입을 그린다

때 이른 여자들인 우리, 문화의 억압된 자들인 우리, 입마개로 차단된 아름다운 입들, 꽃가루, 숨결, 미궁, 사다리, 깃발인 공간인 우리, 도둑맞은 여자들인 우리. —우리는 검은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다.

우리는 가부장제의, 남성의 총괄한 억압과 규범을 견어내려고 한다. 때로는 순결 이데올로기로, 만연한 이성애 중심주의로, 성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성의 몸을 식민화 하려는 공모를 이제 좀더 유쾌하게, 좀더 발칙하게 위반해보려 한다. 그리고 이제는 타자로서의 방어적인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서 우리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긍정하려 한다. 다양한 여성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것은,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가 설정해놓은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재생산하는 모든 방식의 억압 체계를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직 누군가에게는 낯설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이 선언을 끊임없이 발화해야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숨쉬고 우리 자신을 긍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가장 급진적인 선언이기 때문일 것이다.

폭풍같은 여자들,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우리가 약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선은 사라지고, 우리의 미소는 흘러내린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 우리의 피는 흐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쏟아 붓는다. 그래도 우리는 고갈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호, 우리의 글들을 우리는 부여잡고 있지 않는다. 우리는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 中

by_ 아무도
흔들림을 긍정함

강연

여자 '되기'에 관한 색다른 욕망

- 대상으로서의 페니스와 주체로서의 버자이너에 관한

강사 권김현영 (동덕여대 강사/ "언니네방" 기획자)

9/13(수) 늦은 7시, 논지당 세미나실

영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언니들의 달콤하고 치열한 일상!

영화 탐폰 설명서, Interviews with My Next Girlfriend,

The Ten Rules, 이반검열1

• 영화상영 후 '이반검열1' 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14(목) 늦은 7시, 백양관 강당

전시

욕망, 결코 숨길 수 없는

9/13~9/15 삼일 내내,
이론 10시~늦은 6시까지, 학생회관 앞

워크숍

오늘도 밝히는 하루

진행 원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9/15(금) 늦은 7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강연 여자 '되기'에 관한 색다른 욕망
- 대상으로서의 페니스와 주체로서의 버자이너에 관한
강사 권김현영 (동덕여대 강사/“언니네방” 기획자)
9/13(수) 늦은 7시, 논지당 세미나실



Art by: Kyoja Bowe

영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언니들의 달콤하고 치열한 일상!
영화 탐폰 설명서, The Ten Rules, 이반검열1
Interviews with My Next Girlfriend
영화상영 후 '이반검열1' 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14(목) 늦은 7시, 백양관 강당

레즈비언, 그녀들의 일상은 달콤할 만큼 달콤하다. 그리고 치열하다.
그녀들의 인생은 그녀들로 인해 달콤하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그녀들의 인생은 사람들로 인해 치열하다. 그녀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들을 인정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젠 너무 촌스러우니 재발 그만두라 외치고
싶다. 그녀들은 다만 즐겁게 자신들의 일상을 즐겨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들을 짓누르는 억압
에 대해서도 내뿜을 것이다. 그녀들은 더 이상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자신의 호모포
비아를 감지조차 하지 못하는 이성애자들의 짐을 대신 지지 않을 것이다. 이성애자들의 짐은 이
성애자들에게 맡겨 놓은 채, 신나게 자신의 쿼어를 외칠 것이다.



영화 탐폰 설명서

탐폰 설명서 성재원/ 한국/ 2001/ 14분

탐폰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탐폰을 월경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의 상상력
은 좀 빈약하다. 자위와 레즈비언 섹스까지, 사고를 확장
시키자.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실현 방법을 풍부하게 해주는
탐폰, 그녀들이 탐폰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궁무진
한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Interviews
with my next girl friend**

Nicolaou Cassandra/ 캐나다/ 2001/ 13분/
레즈비언 로맨틱 코미디

여자친구를 구하려는 주인공이 만난 여자친구 후보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레즈비언들의 모습을 만난다.
직업, 성격, 섹슈얼리티, 성적인 취향, 이상형까지 그녀
들은 너무나도 다채롭다! 상상도 못 하던 다양한 언니들
을 간접 체험할 기회가 될 것이다.

The ten rules

Lee Friedlander/ 미국/ 2002/ 28분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되는 그녀들의 사랑과 연
애, 관계에 대한 특징들을 열 가지 명제로 정리하여 보여
주는 영화. 소심한 레즈비언 주인공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
되는지도 놓치지 말고 따라가자. 언니들의 공감 백만 개

**이반검열1
Lesbian Censorship in School 1**

여성영상집단 욕/ 한국/ 2005/ 27분/ 다큐멘터리

여자친구들끼리 손을 잡거나, 남자아이처럼 머리를 짧게 자
르는 것으로 이반을 '검열'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을 통
제하려는 학교, 성적체성을 '검열'하려는 학교 당국의 태도
는 사실 우리 사회의 호모포비아를 아주 조금 극대화시킨
결과일 뿐이다. 이반검열은 이런 학교를 벗어날 수 없는 청
소녀 동성애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영화 The Ten Rules 중



영화 이반검열 1

• 영화상영이 끝난 후에 이반검열1
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9회 여성제를 만든 사람들

제 9회 여성제 기획단 여성목양실현단

건국 (인문 06) 달리 (행정 04) 레이 (간호 04) 모름 (의학 03) 베이 (사회 06) 웬지 (경영 03)
우주 (간호 04) 아랍 (사회 06) 자몽 (법학 05)

행동하는 일상, 참여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성학회

성어 (불문 05) 아무도 (사회학 04) 아이세 (사회학 04) 코알 (신방 05)

워크샵 오늘도 밝히는 하루
진행 원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9/15(금) 늦은 7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자위, 자위, 자위 아는 만큼 즐겁고, 하는 만큼 느대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여성인 내가 자위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말한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쉽
게 꺼내지 못하고 꼭꼭 숨겨놓기만 했던 욕망, 어릴 적부터
마음 속 다락방에 넣어두었던 것들, 이제는 나누고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위 워크샵 '오늘도 밝히는 하루'에서 꼭꼭
꼭꼭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밤을 즐겨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
웬지 부끄러워서? 애왕~ 하루나 미타태!

《오늘도 밝히는 하루》에서는...

• 경험 나누기

나는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 난 내가 자위를 한다는
걸 인정하기 두려워서, 난 이런걸 보면서 자위를 해. 난 자위
보다 섹스가 더 좋더라. 난 자위할 때만 오르가즘을 느껴...
어떤 얘기도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 준비를 해도 좋고 안 해
도 좋아요. 자위에 대해 하고 싶은 말들 모두모두 나눠 봐요.

• 몸과 친해지기

내 몸에 집중해보고, 내 몸과 친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살찐/미끈/큰/작은/둥근/가는/예쁜/사랑스러운/ 나의 몸!
어떤 몸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몸은 모두 멋지니까요!

•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

성기중심적이거나 섹스중심적인 것을 탈피해 봐요. 색다른
자위를 꿈꾸어 봐도 좋고요. 내가 원하는 새로운 sextoy를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워크샵 그리고, <작은 파티>

• 시뮬레이션인용품들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면, sex toy경
매에 함께 해요. 흥미진진한 눈치보기와 낱알의 기쁨을!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 밤을 즐기는데 입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음악이
흐르는 선선한 가을 밤, 한 모금 시원한 맥주와 달콤새콤
한 막을거리와 함께 못다 나눈 수다를 나눠보아요.

워크샵은 준비를 위해 미리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empower@yonsei.ac.kr로 이름, 연락처, 참가동기를 보내주세요.

전시 욕망, 결코 숨길 수 없는

9/13(수)~9/15(금) 삼일 내내
이른 10시~늦은 6시까지, 학생회관 앞

그녀의 입술이 말할 때

나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함, 무언가 '설
명'해야만 하는 압박들. 우리는 어쩌면 '나의 섹슈얼리
티' 보다는, 나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오해려 더 익숙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를 단일하게 묶어
내려는 그들의 촘촘한 억압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 우리
는 우리의 욕망을 '설명해야만 할'을 거부한다. 우리의 섹
슈얼리티가, 우리의 욕망이, 남성의 언어로 해석되는 것
을 거부한다. 가부장제가 설정해놓은 '정상성'의 기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좀더 발칙하게, 그리고 좀더 유쾌하
게 조롱하고 비틀어버리고 한다. 그들과 설정해놓은 타
자의 영역에서, 그들이 설정해놓은 경계의 밖에서, 우리
는 오해려 넘나들고 춤추고 날아오를 것이다.

여성, 욕망을 그리다

명들었던 욕망이 내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어떠한 말들
을 건네야할지 몰랐다. 불안하지만 절박한 표정을 어슬
프고 모호한 몸짓들. 그러나 이제는 그 혼란리는 심정들
을 긍정하려고 한다. 그것들에게 애써 말을 건네지 못하
도, 무언가로 설명해내지 않아도, 나의 욕망은 충분히 생
동하고 숨는다. 열명 남짓의 여성들이 모였다. 그리고 자
신의 섹슈얼리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한다. 내
몸에 새겨진 푸른 명들은, 오늘 꽃처럼 눈부신다.

Interview with my mummy

"코지군은 모를거야, 35살의 아줌마의 욕망을" (도쿄타워)

내가 엄마에게 기대했던 것은 좀 더 강렬한 욕망이었던 것 같다. 도쿄타워에 나오는 키미코처럼 욕망과 열정으로 가득찬, 흘러넘칠 것만 같은 풀을 가진 그런 여자 말이다.

"나? 내가 섹스의 맛을 알게 된 건 에를 넣고 난 뒤였으니까."

엄마는 섹스를 즐기진 않지만 오르가즘을 느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섹스 하는 것이 아프기만 했다고 하기도 했다. 그저 결혼하면 섹스를 하는 게 당연하니까 남편이 원하니까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 재미 없는 섹스를 해왔던 것 같다.

"전에 한 여자가 하는 얘길 들었는데, 50이 넘는 남편인데 한번 하면 4번을 한다더라. 근데 그걸 받아주고 있는 그 여자도 그런 건 별로 싫어하지는 않는 거지."

"변태지 뭐야. 그건 변태들이지"

"친구 얘긴데, 한번은 동구멍에 넣었다는 거야. 아파 죽을 뻔 했다고 그러더라구. 술 쳐먹고 들어와서."

"변태라니까. 성병 걸려 성병. 나는 그런 얘기 듣기만 해도 병 걸리는 것 같아"

엄마가 아는 아한(그래서 이상한)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이다.

"말하지 못하는 욕망? 아 그런거 없대니까."

"남들이 어떨지는 모르지. 가슴 속에 있는 욕망까지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내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는 그런 변태 같은 것 없었대니까."

"가슴 털? 턱에 있는 것도 까살해서 싫어죽겠는데 무슨."

"리처드 기어 같은 남자 좋지. 영화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외모라든가."

"결혼하고 나서 훨씬 적극적으로 변한거지. 그 전이라 다른 건 별로 없어."

엄마는 리처드 기어를 좋아하지만 리처드 기어와 섹스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잠시 아빠와 리처드 기어 사이의 깊은 꼴을 생각해보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버렸다.



"한 남자가 벽차죽었는데, 그런 것 있으면 뭐해."

"내 남편이란 전혀 다른 남자라면? 음...그래도 그냥 그러저러 살겠지."

"난 남편이 있으니까 자위 안하지."

"섹스 같은 건 원래 별로 즐기지를 않아. 결혼 전에도 하긴 했지."

"남자랑은 달라서 하고나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장난처럼 대답을 하면 엄마가 동요한 빛을 보인 대목은 "다른 남자에게서 구애를 받는다면 기본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서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뒤에 "그래도 그냥 지금처럼 살겠지"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한번도 그런 식의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다.

"나랑 남편은 섹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야."

"아니 잠은 자야할 거 아니냐고 밤마다 샤워하고 기다리면 피곤하지."

"그런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이미 결혼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대니까. 다 바람났지." 엄마의 소녀시절과 아빠를 만났던 때가 궁금해졌다. 그 당시의 엄마는 어땠을까. 어떤 것을 꿈꾸고 있었을 까와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그 시절의 아빠를 만나면 몇 대 때려주고 싶을 지도 몰라 따위의 생각도 들었다.

"그냥 나 같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라니까. 85-90%는 그냥 산다니까."

"인터뷰 할게 뭐있어. 다들 그런 거지."

엄마는 인터뷰 할 게 없다고 했지만,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엄마는 재미없는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옛날 사람이라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고지식하며 섹스를 많이 하지도, 즐기지도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오르가즘'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내 눈동자를 초조하게 바라보는 것이라든가, 성적 판타지의 예를 드는 것에 대해서 종종 '변태지, 변태' 라고 말하는 것들에서 말이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말은 나를 완전히 엄마의 팬으로 만들어버렸다. 역시 나를 키운 건 8할이 엄마의 유머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다.

"개코딱지 환타지고 나발이고 5분이면 끝나, 아니 2분이면 끝나."

"이제 됐나?"

"여기까지 얘기해주다니, 미쳤지."

"너 이런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돼!"

역시 아빠를 몇 대쯤 때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by_ 바빔바
나나나나

서평 피아노 치는 여자

'욕망을 노래하는것', 그 처절하고, 철저한 미로 찾기에 대하여 엘프리데 엘리네크의 <피아노 치는 여자>

"연주자는 작곡가에게 종속되지만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엘프리데 엘리네크, <피아노 치는 여자> 중에서)

엘프리데 엘리네크의 대표작 '문재작' <피아노 치는 여자>는 여성 욕망과 쾌락에 관한 흥미로운 텍스트임에 틀림없다. 이자벨 위페르의 뛰어난 연기로 완성된 영화 <피아니스트>의 원작으로도 유명한 이 작품은 어머니와의 억압적 관계에서 어떤 탈출도 하지 못하면서 그 박탈된 욕망을 두고 위험한 실험을 벌이는 여성의 이야기다.



"고통이란 쾌락, 파괴, 그리고 파멸로 향하는 의지의 결과인 것이다. 고통의 최고 형태는 일종의 쾌락이다. 에리카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한계까지 뛰어넘고 싶다... 물어뜯으며 한데 뒤엉켜 있는 사람들 속에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기에 그렇게 사람의 감각을 뇌쇄시켜서 누구나 그것을 행하거나 직접 바라보고 싶어하는지 알아내고 싶기 때문이다. 육체의 내부로 들어가는 길은 설명이 불충분하고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인간으로부터 마지막 은밀한 부분을 끌어내려고 그들을 해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엘프리데 엘리네크, <피아노 치는 여자> 중에서)

지저분한 섹스습을 전전하고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러나 여전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에리카는 여성의 욕망과 그것의 결말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던진다. 에리카는 남자들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널부러진 섹스습과 포르노 극장의 앞자리에 앉아 '박탈'을 채우려한다. 남성들의 방식(유사 남근이 되는 것)으로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을 실험하는 에리카는 한편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래서 도전적이기도 하다. 즉, 이 사회에서 그녀에게 가해지는 통제와 그로 인한 박탈은 이 세계(남성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소설은 억압된 여성 욕망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남성 사회가 조직해 내는 여성의 몸을 향해 '과연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담아 '욕망'을 집요하게 성찰하는 보고서에 가깝다.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에리카는 젊은 남자 애인에게 자신을 묶고 채찍질해 달라고 편지를 쓴다. 에리카의 이 위험한 실험은 클레머의 '사랑'으로 포장된 욕망의 저 아래를 드러내면서 여성의 몸이 놓인 현실에 포획되지 않으려는, 남성 사회가 작동하는 질서 외부의 공간을 향하는 시도이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종국에 그녀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재갈을 묶고, 채찍질하라는 에리카의 요구는, '이상적 이성'에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가진 클레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고, 에리카를 찾아와 편지에 적힌 대로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분노를 표출한다. 독자로서 건디기 어려운 불쾌함을 가져다주는 이 장면은 클레머의 내면에서 솟아오른 전형적 욕망을 드러내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낭만적 사랑의 각본을 벗어난 여자의 요구에 혼란을 느끼며 "이 여자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라고 중얼거리는 그 남자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여성의 몸적 경험과 주체성의 문제, 내 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 작가는 클레머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여자의 몸의 욕망을 깨우겠다고 하는 말이 우스운 것 이듯, 그렇다면 에리카의 욕망이 그녀가 '주도하는' (남성과의) 성적 실천에서라면 충족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 소설은, '욕망'과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성적 권력관계의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과 정치성을 담아 "너의 욕망을 노래"하라면 외침 다음의 페미니즘에 관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피아노 치는 여자>는 기존의 페미니즘 문학이 가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덕목들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대신 여성의 욕망에 관한 페미니즘의 무한한 정치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도발적 질문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여성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적 남성들의 권력적 시선과 그것의 작동을 완강히 거부하려는 여성들의 몸짓은 완전히 이 세계의 질서 바깥에 대한 상상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내러티브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 <피아노 치는 여자>는 '여성 욕망'을 언어화하고 노래했던 우리에게 현시대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눈을 다시금 요구하고 있다. 결국 클레머를 찢지 못하고 자신의 어깨를 찢고 집으로 돌아선 에리카는 칼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 에리카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그 칼로 이세계의 질서 '너머'로 통하는 얇은 벽을 찢어야 할 것이다.

by_ 이갈

<피아노 치는 여자>는 재미있는 만큼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책이다. 어렵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

좌담



말썽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썰 하거든요~?!

참가한 사람 말라, 체리, 하품, anne, 크림, 바밤바, 호두, 지아, 호일, 웬디, 그리고, 결립
정리한 사람 크림, 난 니가 너무 좋아

죄담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지아 우리 주제는 거칠게 '여성 욕망을 말한다.' 인가. '욕망'에 대해 말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것도 문제야.

호두 너무 주제가 광범위해

지아 그럼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 그 이야기부터 풀어 가볼까. 자신의 욕망과 늘 싸워 왔거나 하는 부분 말아야.

말라 난 어렸을 때 언니랑 거실에서 봤던 춤이 욕망에 자유로운 춤이었어. 따라 배우는 춤이 아니라 기교도 하나 없이 그냥 온 몸에 힘을 다 빼고 추는 춤이었거든.

호일 음. 난 처음 내 욕망을 긍정한 게 중·고등학교 때 포르노 동영상을 보며 떠드는 것을 2달 동안 했을 때. 그 전에는 성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다가 그때부터 긍정, 부정 이런 것 없이 성욕에 대한 생각이 타졌어.

anne 난 아한 이야기나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간접 체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내가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한 이야기를 하는 주체는 나지만,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거였어. 쿨한 척하면서 나 자신의 이야기는 썩 빠져 있었던 거지.

그리고 보면, 여자들의 자위이야기를 들 어본 적이 없어.

말라 친구가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도 하는구나' 하면서 뿌듯해했는데, '나도 한다.'라고 말하는 건 역사나 힘든 일이었어. 내가 하는 게 자위인지도 몰랐고.

크림 이번 방학에 언니랑 같이 여행하면서 자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누군가와 자위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에서 해방감을 느꼈어. 좋더라고. 얘기하면서 자위도, 나의 욕망도 긍정하게 됐어.

anne 난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위라는 것을 알고는

합리화 할 수 없어서 괴로웠어. 또 지금 내 집에 사는 게 아니니까 더 죄책감이 들어서 자위하기 힘든 것도 있었고.

크림 나도 내 방에서 하다 언니 방에서 하면 왠지 미안하고 그랬는데.

지아 자위에 대해 어디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으니까 더 비밀스러워지는 거 같아. 그러다보면 나만 그런 것 같아서 괜히 죄의식을 갖게 되고.

하품 질문이 있어. 자위를 할 때 영화를 보면서 한달지. 뭔가 자극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영화 보면서 할까. 난 그냥 보지 않고 자극하는 매체가 없어도, 성기에 몰두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궁금했어.

크림 난 그냥 상상해서 하곤 해.

결립 나는 소설이나 야설이나 글로 된 걸 주로 보는 쪽인데 노골적인 묘사를 하는 야설들보다도 애무하는 과정을 묘사한 글에서 더 오르기증을 느껴.

바밤바 난 아직은 그런 매체가 없으면, 내 몸에만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

부시력 부시력, 성욕이 매체와 충돌할 때

지아 난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실마 날 생각하며 자위하는 거 아니겠지?' 란 생각에 찝찝했어. 하이틴 소설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 누구든 자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거기에 개입된 환상이나 판타지가 여성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이니까. 더구나 그런 것들이 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짜증이 나.

체리 그런 것을 보면서 자위해야 된다는 것도.

하품 맞아. 한번은 아한 사이트를 보면서 자위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보면서 하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인데 내가 왜 이걸 보면서 할까?' 란 고민이 든 적이 있어. 한 마디로 매체가 없는 거지.

바밤바 여성이 대상화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욕망을 느끼는 것에 대해, 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웠기도 했어. 어떤 면에서 학습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지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진짜 불쾌해

여성이 도구화되고 대상화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 난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다는 게 슬퍼.

깜깜한 성교육

크림 성욕은 임신과 출산이 있어서 더 거룩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호두 거부장제가 만들어진 환상이지. 탈성화 되잖아.

지아 성교육 받을 때도 수정부터 얘기하니까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썩 빼고 이야기하잖아.

호두 어린 시절 성교육은 임신에 대한 공포뿐이니까. 난자는 가만히 있고 정자는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 주잖아.

지아 그거 실제로 아니래. 정자들이 달려들면 난자가 마음에 드는 애를 쏙 가져간단다더라. 하지만 꼭 정자가 난자를 침해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호두 성교육이 임신 교육, 몸을 지키기 위한 것. 성욕 행을 조심해라 식의 교육 밖에 안되는 게 너무 답답해.

구성된 욕망

anne 근데 남자가 생물학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자들의 그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같아.

지아 난 성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모두가 동일한 욕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부족은 맛있는 음식을 돌이 몰래 나눠먹는 게 사랑을 나누는 행위래. 생물학적으로 모두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틀 안에서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거 아닐까? 거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한정된 욕망만을 강요하기도 하고, 게다가 여성들의 성욕은 무조건 대상화되기 십상이잖아. '난 욕망이 있는 주제다.' 이런 표현이 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내가 자위를 한다고 말했다 때 침해될 수 있는 어떤 지정들이 있는 것처럼 말야. 난 여성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곧 대상화가 되어버리는 게 너무 싫어.

넌 어떤 섹스를

호일 우리 어렸을 때 성욕에 대한 얘기를 한 이야기나, 현재

지아 난 섹스가 갖는 교감이라고

이랑 섹스를 할 때만, 섹스를 하기 전

분한 대화가 필요하

람과 섹스를 하면

답답하지

체리 우리는 언제

는 연애도 꿈꾸고

게 좋지

지아 애인과 한다

이 이야기를 해

하품 난 소통을

이랑 섹스하기 전

계획도 다 잡았

지아 맞아 소통이

섹스에 대한 이

스는 소통이 제일

지 잘 몰랐는데

말라 나는 섹스나

하기 전에 어떤

지아 가령 오랄을

람도 있잖아. 관계

이고 내가 원하는

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이 모두 소통

않도록 거기에 대

체리 우리 사회에

있고, 정보가 제약

수 있는 건 남성

안돼" 같은 것들

각의 차이가 너무

그게 폭력이 되는

결립 '언니네 방'

폭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의 소통

여성의 욕망에서 성욕은 언제나 쏙 빠지기 쉬운 주제다. 아니, 굳이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자위', '섹스'와 같은 폭 짙어 성욕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는 너무나 쉽고 허다하다. 그래서 그것은 친구와의 수다에서도, 지금까지의 성교육에서도, 그리고 나의 입에서도 빠져나오기 힘든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여성의 욕망에 입을 그리는 우리들은 대놓고 성욕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사실, 입이 근질근질했던 것도 있거니와, 왜 이야기 못할 게 그간 말 못할 심경의 변화도 다 겪은 차였다. 우리는 그저 여성의 성욕,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가 아닌, 그저 말하는 좌담. 하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오가며 성욕을 꼭 참고, 좌담을 끝마친 것으로.

꿈꿔?

나의 성욕 얘기만 하고 현재 나의 안하고 있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자.

통의 한 과정이고, 그만큼 몸으로 직감하거든. 그래서 애인 아닌 사람 죄책감이려든가 그런 건 안 들지. 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라고 생각해. 근데 애인 아닌 사람 그런 부분이 좀 힘들게 되는 거야.

소통하는 섹스를 꿈꾸지 소통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인이랑 하는

되는 건 아니고, 애인과 끊임없이

이 하고 하나씩 되게 좋았어. 애인 먼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할지

중요해.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면서 기를 하는데, 경험 많은 언니가 섹스 중요하다는 거야. 그땐 무슨 말인가. 공은 잘살하게 공감이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해기를 나누는지 궁금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서로 섹스에 대해 어떤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지 요만큼의 찜찜함도 남아 있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생이라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어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접할 공간 판타지 위주나 '임신'을 하면 해는 없고, 서로의 섹스에 대한 생은데 그것을 조화하지 못했을 때, 같아.

반면에 나온 책에 맨 첫 꼭지였나.

처음 어릴 때 한 섹스랑 좀더 알게 되면서 했던 섹스를 비교하면서 쓴 글 있잖아. 맨 마지막에 적었던 에피소드를 보면서 '내가 바라는 섹스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호일 나는 '도코타워'에서 아성적으로 묘사되는 섹스부분 읽을 때, '진짜 이런 섹스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품 난 섹스하다 말할 때 되게 좋은데, 날 때쯤 되면 달아온 거지.

그래서 성욕이도 공간이 필요해-

지아 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없네.'는 거야.

크림 나는 내 친구가 남자친구와 섹스를 하고 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걱정하면서 이야기 꺼낸 적이 있어. 내가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대화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하품 내 친구들은 나한테 처음으로 애인과 섹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해.

크림 아, 성욕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정말 성욕을 참기 힘들어.

이렇게 입술 꼭 깨물며 좌담은 끝이 났다. 좌담 진행 중 한마디 없이 내용을 기록하던 참가자 뎀디는 '저 에겐 프랑스 혁명파도 같은 시간이었어요.'라는 말을 남기며 좌담의 끝자락을 웃음으로 장식해주었다. 매체에 충돌하는 성욕, 갑갑한 성교육에 스몰스몰히 가만 했던 나의 성욕에 프랑스 혁명파도 같은 해방감을 느끼는, 성큼한 시간 곧 여성제에서 그 기회가 생기니, 당신도 말했 욕망에 입을 그려보시길 ^^

나는 욕망한다. 내가 똑따기 단추의 셔츠를 과격하게 들어내며, 한 휴대폰 광고의 레슬링 장면처럼 섹스하는 것을.

하지만 내 욕망은 여전히 걱정을 동반한다. 이것이 TV에서 매일 매일 내보내는 강간 판타지의 일종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을까, 틀.

하지만 이분법적 성별 구조에 따라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여성인 내가 갖는 걱정일 뿐이다.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의 폭력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서 난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난 내가 그 대상이 됨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살피시 눈치 채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겁부터 가지는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렇다.)

남성의 강간 판타지는 욕망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들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를 그들은 욕망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집단적인 '욕망'으로서,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들의 왜곡된 이미지를 -무성적이거나 아니면 언제나 그들과 섹스 할 수 있는 '성적인 존재' 이거나- 생산해내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단순한 섹스 '판타지' 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집단적인 '욕망'으로서 그들의 강간 판타지는 끊임없이 실현 가능한 활로를 찾아낸다. 그들의 '욕망'의 재현인 포르노, 실천인 성매매 등등으로 이성애중심적인 가부장제의 승인을 받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정당한' '욕망'을 분출하려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성 관계를 전제로 설정해놓은 성적인 욕망은, 욕망의 주체인 남성과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정상화' 한다. 그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욕망'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이다. 일방적인 권력 관계, 주체와 대상이 뚜렷이 나누어져있는 상태에서 이미 소통이라는 과정은 존재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의 소통 없는 '욕망'은 '욕망'의 일방적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권력 관계의 차이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좀 더 과격한 섹스'와 '강간'의 차이조차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폭력이 아닌, 욕망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의 욕망이 만났을 때, 그것은 쌍둥이처럼 동일할 수만은 없다. 서로 욕망했음지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망이 충돌했을 때 소통하지 않는다면, 욕망은 자연스레 권력을 가진 자의 것만으로 충족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는 폭력에 '욕망'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며, 강간, 일방적인 키스 등의 이미지를 멋지게 포장해 드라마 등의 많은 매체들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쌍방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여성도 그것을 원하니까.' 하지만 이 사회에 폭력을 당하지 않을 욕망 외의 선택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폭력을 담보한 욕망, 그것이 지금 사회가 생산해내고 있는 욕망의 전부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시화된 이성 관계의 성적인 욕망에서 그 폭력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를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욕망'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 대답은 나올 것이다.

여성이 주체로서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비가시화되었던 것들을 언어로서, 몸으로서 새로 구성해나가려는 지금, 가부장제에서의 '욕망'은 우리의 욕망을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통의 힘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숨겨져 있던 욕망을 소통으로서 지금 꺼내려고 하는 여성들은 지금 무거운 가부장제의 억압을 벗어나서 폭력 없는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과격한 섹스를 원한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가 나를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답습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욕망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소통했을 때, 나는 나의 섹스 판타

지를 욕망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꿈꾸는 '과격한' 섹스가 가부장제의 그것과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소통으로서 풀어가며, 그녀들이 말하는 폭력 없는 욕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욕망을 말하려고 하는 그녀들의 힘을 받으면서.

by_ 상어

백삼십만 마리의 욕망하는 상어



나의 욕망, 자유를

욕망, 특히 성욕이라는 건 내게 있어 결코 미지의 영역이나 무지의 대상은 아니다. 내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성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부터 알게 된 게 문제라던 문제였다. 기억을 되새기다보면 어린 시절 어린이용 동화책으로 나온 인어공주를 읽다가 삽화로 실린 인어공주의 나체를 보고 어린이용 책치고는 좀 수위가 높았나보다. 아니면 아이들은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보지. 알아야 할 것을 본 것처럼 조금 두근두근 했던 일이 떠오른다. 사춘기 때도 나는 나의 성욕을 너무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성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의 나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여자에게 주어진' 성욕을 가지고 있는 나, 자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나, 나는 이런 내가 과연 '정상'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해오만 했다. 가끔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야한 주제까지 화제가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누구도 자신의 욕망이나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들도 나와 같은 성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 다른 여자애들에 비해 과도한 성욕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분명 한 건 여자애들끼리 각자의 자위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였다.



세속적인 사회 집단에서조차 나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줄 것 같지는 않았으니 거룩한 종교 집단이라면 오죽하랴.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이었으니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주 교회

에서 남몰래 참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는 크게 참회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다시는 자위를 하지 않겠다고 자신과의 약속을 한 적도 있었다. 내 기억으로 1년 정도는 용케도 그 약속을 지켰던 것 같지만 결국 끝까지 실천하지는 못했으니 불행이라고 할지 다행이라고 할지.

돌이켜보면 나의 욕망과 나의 관계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욕망을 아예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지도 못한 채 나는 언제나 나의 욕망을 억누르려는 데만 급급했다. 내가 내 욕망을 마주 대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충족감이 아니라 좌절감과 불안감이었고, 비난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다보니 자위를 할 때도 욕망을 빨리 떨쳐내기 위한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하고 나서는 언제나 고리표처럼 죄책감이 뒤따랐다. 그러다가 여성주의를 알게 되자 그것은 내 욕망에 있어서는 일종의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이니 다름없었다. 여성의 욕망은 죄가 아니고, 자위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것을 그냥 믿고 삼켰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성경 구절도 나의 욕망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지만 여성주의를 통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또한 자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나의 욕망이 이상하거나, 혹은 더러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욕망할 때마다 생기는 좌절감, 불안감, 두려움이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꼭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실은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욕망을 구성하는 사회적 시선에 있었다. 욕망하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알지못한 욕망하는 여성은 더러우며, 이상해 부부가 종종 반식을 위해 서로 간에 갖게 되는 성욕은 자연스럽지만 그 이외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욕망은 나쁜 것이었다. 게다가 여성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행위는 일반

적인 사회적 통념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욕망에도 (그다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급제가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언젠가는 한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자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친구는 남자들은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위를 통해 욕구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친구는 여자도 자위를 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그런 여자가 있으면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바로 나 앞에 있어 라고 말해주고 삼켰지만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자위하는 여자도 생각보다 꽤 많다고 들었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자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던 걸까. 남성이 자위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해서? 몇 년 전의 나라면 또다시 자위하는 나의 비정상성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솔직히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 여성의 욕망을 위생시키고 죄악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러한 통념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이고 어라색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는 예전처럼 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나의 욕망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혹시나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정말로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는 자위에도 아직 서투르다. 하지만 욕망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는 예전에 비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이제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내 몸과 나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은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나의 욕망과 화해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그 화해의 순간에 나는 아마 지금보다 한 뼘쯤은 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by. anne

쏟아지던 날카로운 말에 배인 채 아물 줄 모르던 상처들에도 조금씩 새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 그 소녀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이 글은 '오로라'를 가지고 개인 본래의 표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부분은 허급나 후 개정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뽀뽀 한 번이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성이고 여성을 사랑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동성연애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여자들한테 끌린다. (요즘은 감옥보다가 서 세계에서 제일로 세심하다고 믿고 있다.) 이런 나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역사를 더듬자면 유치원생이던 두렵고 어린 시절로 올라가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세살 때부터 언니가 있고, 언니와 언니와 대등하게 지내며 사귀고 지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언니를 너무도 좋아해서 싸우고 나서는 꼭 미안해 하였다. 그 날도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마음이 상하듯 서로에게 못지 않게 '흥'하고 등을 맞대고 뒤돌아서 등을 찌르는데 눈이 밀려들었고 머리도 포갠 채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이거 뭐냐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언니가 사랑스러워서 말하는 기운으로 차고 있는 언니에게 뽀뽀를 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것은 나의 유년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물론 이 일화는 사랑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의 가족사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나도 이를 딱히 분류하려던 지혜와 발로 북에 손을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사랑과 육체의 영역에서 자매애와 연애의 분리는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적어도 이 일화에서는 그 두 감정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나는 분명 그 때 유치원에서 좋아하던 남자친구와의 놀이와 아이들을 기를 때보다도 가슴이 더 뻗었으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이것 봐 나는 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전부터도 여자를 연애대상으로 봐'라는 증거로 무겁게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은 '사랑'이라는 본래 규정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동성애란 게 있구나 근데 뭐?

나는 동성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늦게 알게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한 번도 성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고, 따라서 나는 그들로부터 미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동성애적 육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물론 동화책이나 학교 교사의 도덕수업 시간에 애정, 연애, 결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등등 사랑의 형태에 대한 간접교육은 받았다. 그리고 언니와 같은 빈이 어떤 남자에게 있다는 등의 비참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동성연애에 대한 텍스트를 접했을 때 나는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때 나의 사고세계에는 연애에 대한 인식은 있어도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이 사실조차도 한참 지난 후에 친구가 내가 그 때 읽었던 책 동성연애에 대한 것일까? 라고 말해줘서 알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동성애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레즈비언으로서의 내 유년기를 다시 정리해보고 싶었다. 그럴 내가 10살 때 눈부시게 활짝 핀 여자애를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한살 때 이리 하나는 작은 친구를 업고 다닌 것도 다 내 동성연애를 한 것일까?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천진하게 손을 잡어오던 친구들, 나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목욕탕에 가던 그녀들, 예전 나는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었나?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믿었기에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답은 너무 간단하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애했음을 즐긴다. 곧 이성애자 여성이 사랑의 모든 남성에 욕망을 품지 않았고 동성애자 여성도 그 모든 여성에게 연애했음을 갖지 않는다.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특정 누군가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나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내가 동성애자야 근데 뭐?

사실 나는 언제나 '동성애자'라는 타이틀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그냥 이 사람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대상이 여자가 되었을 뿐이지 나의 성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사회로부터 경멸받을 것을 두려워해본 적도 없다. 그냥 나는 그랬다. 나는 내가 사는 방식에 좀 느긋한 편이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그냥 아무렇거나 싶도록 대한다. 그러나 꼭 사회가 편지는 '남성을 사랑하는 일'만인 것 이상에서 가 도메인 한다는 편견이 있었다. 나는 여자애인과 한 번 카피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심지어 두는 걸 당당했다고 자랑해서 뽀뽀도 해본다. 친한 사람들과의 집안에서 착당히 연애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을 때 대충 이해하셨다 싶은 이들에게는 내가 레즈비언이요 커밍아웃도 해본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용되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이렇듯 나 자신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그렇게 커다란 시간이나 거대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일 뿐이다. 다른 모든 삶의 선택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욕망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그것이 실현가능할 경우 가까이 실천하며 사는 것을 택할 뿐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논리였기에 또한 타인에 해가 아닌 이점 전달할 수 있었기에 그토록 거라금 없이 활발하게 동성연애에 살 수 있었다.

누가 뭐래도 정이빛 인생♥

나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 욕망이 타인에게 폭력이나 수치로 초월하는 광범한 사람이다. 나에게 있어 레즈비언 정체성이 갖는 의미도 여기에 기반한다. 그것은 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정체성처럼 특별한 권위나 기를 규정해내기 힘든, 광범한 삶의 화환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 궁극적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말이다.

그렇다고 나는 결코 이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레즈비언이라는 수피 마나 신념으로 살아갈 것을 감수하면 어느 정도 사회로부터 원망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 각오에는 타인의 혐오적인 시선을 느끼고 호기심 섞인 감시와 질책하는 동시에 자신을 부정하는 것들이 병행하는 세계 안에 살아간다는 거대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된다. 나는 왕피의 폭력에 파종내고 나의 연애를 긍정하기 위해 길잡이 날뚱이가 조금은 깨달았고, 그래서 좀 입맞대었다. 결국 나는 세상을 변화하는 스킴을 악한 것이다. (위에서 보여줬듯이 나는 이것을 전성적으로 아주 잘 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택한다. 이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닌가.

by. 자우

자유로워지자

1) 동성연애자라는 단어에는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성애에만 한정되는 편견이 담겨있다.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 동성애라는 단어 또한 위의 의미를 고스란히 내포한다. 그러나 연애라는 것은 성애를 포함한 소통과 교감, 화합, 애정, 존중 등의 사랑간의 관계를 포괄한다. 이러한 연애의 의미가 동성 간의 관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오히려 동성연애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자위와 보지¹⁾, 그리고 소통-가능성을 만나다.

임신 못해?

언제부터 이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대략 아주 어렸을 때였다. 나와 세상 터울인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부터 기억이 있으므로, 네댓 살쯤이었을 것이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았다. 그게 자위인줄도 몰랐다. 었드려 누워 치구를 바닥과 마찰시키다보면 어느새 찌릿찌릿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난 그저 그 느낌이 좋았더라. 잠이 안 오는 날이면 꼭 자위를 했고, 계속하다보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고, 오줌을 싸고 방에 돌아와 누우면 곧 꽤 근쾌한 잠에 빠졌다.

그게 '자위'인 줄은 몰랐으나, 하면 안 되는 행동 혹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남들 앞에서 '하렘도라'를 만지는 것은 금기였으므로, 어쩌다 엄마와 같이 자게 되는 날이면, 혼날 것 같아 참다가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져서 몰래 꿈틀꿈틀 거리고는 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몰래'가 가능할 리 없었다. 아주 옛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가 나를 불러 방에 앉혀놓고 혼내면 그날의 기억이.

"너 자꾸 그런 거 하면 나중에 임신 못해!"

지금 그 얘기를 꺼내면 엄마는 진짜 그랬으며 웃는다. 나는 엄마가 한 그 말 때문에 거의 십여 년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웃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니, 클리토리스 자극 좀 한다고 임신을 못하니! 어린 딸이 자위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무조건 막고 싶어 했던 스물다섯의 어렸던 엄마와, 자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불임'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던 다섯 살인 여자아이 사이에는 그 이상의 소통이 없었다. 아마도 스물다섯의 엄마는 그렇게 딸에게 겁을 주었으니 더 이상 자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안심이었을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날의 일을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섯 살의 딸은 그 말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그 이후에 자위를 할 때마다 '이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딱 오늘 까지만'을 되뇌었다. 조금씩 커가면서 '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딸은 엄마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게 되었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계속되었던 믿음 아닌 믿음을 떨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자짓 거, 임신 따위 안하고 말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 소녀에게 있어 몸과의 소통은 위험한 행동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러나 끊을 수 없던 달콤한 마약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위'인 줄은 몰랐다. 그것은 그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고, 쾌락일 뿐이었다. 한참 성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왕성하던 때에도, 내게 자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집에 오거나 당근 따위를 넣어보는 것(훗, 이 얼마나 남근 중심적인가!)만이 '자위'라는 것인 줄 알았다.

그게 자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마도 스무 살 즈음이었다. 어느 파사로는 볼날, 한 언니의 자위 이야기에 힘을 얻어 아주 조심스럽게 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위를 했어 라는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내가 그날 꺼낸 말은 고작 그 한마디뿐이었으나, 그날의 발화는 나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주었고, 나의 몸을 사랑하게 된, 시작점이었다.

보지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 때의 발화 시점을 계기로, 조금씩 내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찾게 되면서 만난 책이 있다. 베티 도슨의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이다.

그 책이 내게 물었다.

"넌 내 보지를 본 적이 있니?"

잠깐이야, 말소사! 없어! 없다고! 단 한번도!

오줌 누 때 위에서 쳐다보거나, 씻을 때 만지기는 하지만



들어져라 바라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 없을까?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만 몇 주였다. 두려웠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무엇이 내 몸을 보는 것을 두렵게 만든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냈다. 샤워한 후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침대에 몸을 기댔다. 거울을 꺼내 들었다.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서서히 떴다.

와아!

이렇게 생겼었다니! 똥고랑 질이 이렇게 가깝구나! 요도도 신기하게 생겼네. 그럼 이게 대음순이고, 이게 소음순이고, 근데 다른 사람들 것도 이렇게 생겼을까?(아니다! 다 다르게 생겼다!) 다들 이런 색인거야?(색도 다 다르다!) 좀 더 분홍색이면 좋을 텐데, 살짝 거무죽죽한걸. 나는 왜 털이 조금밖에 없을까? 대음순 양 옆으로도 털이 나네? (보지 생김새에 '정답'은 없다. 너 얼굴 내 얼굴 다 다르게 생겼듯 말이 다!)

책에서 봤던 보지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내 보지와 비교해보기도 하고, 여기가 음핵(클리토리스)구나! 한번 건드려보기도 하고, 웬지 민망하여 (이젠 전혀 그런 것도 없지만) 금방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웬지 재미있고 신기해서, 이후로도 자주 거울을 들었다. 자꾸 볼수록 예쁜 것 같고, 그날날 조금씩 달라 보이기도 했다. 나중에는 대담(?)해져서 거울을 보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위를 해보기도 하고, 오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섹스로는 쉽게 만날 수 없던 오션생(!)을 만나기도 하고, 의대생 언니가 진행한 자위 워크숍에 참가해 질경이로 질 내부와 자궁경부를 보기도 하고, 흡입형 생리대인 키퍼를 쓰며 점점 내 보지와 친해져 가고 있다. 내 몸에 대해 더 알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강연을 듣기도 하고,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소통, 가능성의 확장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뽕뽕 나온 아랫배를 귀엽다고 자랑하는 스물 한 살의 나에게 마흔 한 살의 엄마는 말했다.

"딸, 몸을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해. 네 몸은 소중한 거야."

"내 몸이 소중한니까 자랑스러우니까, 부끄럽다고 감추거나 공공 싸매지 않지. 뭐, 누가 본다고 몸이 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소중해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 보이는 내 몸이 아니라 대상화 하는 시선이 문제인걸."

"아이고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이제 너 감당 못하겠다."

"에이, 사실은 자랑스러우면서 뭘~ 으흐흐"

자위하면 임신 못한다는 말을 끝이곧대로 믿고 두려워하던 여자아이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스무 한 살이 되었다. 그 때의 엄마가 내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건 좋은 거라고 말해주었다더라면, 내가 내 몸과 만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엄마도 엄마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서 자라났을 테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는 엄마도 어렸을 지도 모른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실제적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확신시켜주는 일이다. ...이것은 자기 삶의 한계를 확대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⁶⁾

그래서였을까, 처음부터 '성(姓)'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내가 들었던 강연에 대한 이야기,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슬금슬금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도,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서로 공공 감추고 있던 이야기들, 절대 끌어놓지 않던 서로의 경험들을, 끌어놓기 시작하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여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번 허가 춤추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엄마와도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여자친구들과 소통하며, 다른 여성들과 경험을 나누며, 한걸음 한걸음씩 가능성의 확장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 되었다.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가를 묻는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만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해방감과 가능성들을 느끼고 만날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은 소통의 기쁨이고, 억눌려왔던 것들을 터뜨리는 혁명의 시작이었다. 여성의 욕망, 감추기만 했던 그 무엇, 실체도 없고, 정형화 되어 있지도 않고, 규정내릴 수도 없지만 너무나 생생히 무한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뜨거운 무언을, 꺼내어 놓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나도 살고, 그녀들도 살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by. 아이서
파랑새를 찾아서

1)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다양한 말이 잘 갖춰 힘들다. '보지'라는 말이 매우 여성비하적인 맥락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것을 여성의 입으로 이야기 했을 때는 친숙성이 있다고도 생각해 본다. 더 좋은 의미를 가진 언어를 만들어 내고 싶은 욕망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보지'로 칭하겠다.
2) 현실문화연구에서 나온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위'를 '전도'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베티 도슨이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자위행위의 의미와 필요성에서부터 자위행위를 통해 오르가즘으로 가는 실제적인 방법, 성적 취향지와 자위행위의 관계, 기타 다양한 논제들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다루었다. 저자 자신의 오랜 연구, 여러가지 사례, 목자들의 편지 등 자료가 풍부하고 문장도 쉽게 써져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자신의 성기가 추하고 기형적이라는 대다수 여성의 불만감을 분석하는 일, 성을 자각하게 해주고 오랜 성적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 가장 본능적인 행위이자 자신의 성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자기 성애'의 과정, '성적인 자신감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성적인 행동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yes24]
3) 질경은 질 내부와 자궁경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입구를 벌려 고정시키는 도구다. 질과 자궁경부를 스스로 감전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온, 심지어 두려워했던 나의 몸 일부를 볼 수 있다. 분비물, 자궁경부 색깔, 크기, 형태, 월경 주기 단계에 따른 장력의 변화 등, 내 몸에 대한 통찰력을 조금이나마 돌려받기 위해 의술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용하는 것이다.
4) 키퍼란 질 흡입형 생리대다. 앞뒤/좌우 생리 고무줄에 생리혈을 받아낸다. 매번 깨끗이 씻어 쓰면 일회용 생리대 보다 안전하기도 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섹스북> 권타 이랜드 지음 / 이영숙 옮김, 박영출 출판사 (성에 관해 읽고 재밌게 쓴 책, 한 번쯤 읽어볼만 함.)
<여자아이를 모놀로고> 이브 연슬러 지음 / 류숙영 옮김, 북하우스 (영국으로 더 유명하죠, 9월에 새로운 공판이 있다고 하네요)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베티 도슨 지음 / 파랑새가 옮김, 현실문화연구 (위에서 얘기했죠, ~)
<한때의 섹스알리기>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섹스 가이드 북) 한 채원 지음, 해를 (생생하고 친절하게,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득,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 여성들이 읽기에도 유용한 책입니다. 보통 서점엔 잘 없어요. http://www.kscrc.org/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 총애학생회실 안에 페미니티에서도 빌려보실 수 있어요.)
6) <대 이상 어머니는 없다> 안드레아스 리치 지음, 김민서 옮김, 평민사 308p

순결함에 관한 몇가지 우문답답

나는 위대한 사랑을 상상한다. 순결이라는 성경적은 없지만, 종종 매우 멋진 자위를 즐긴다. 상상에서만큼 '세계적이고도 자부할 수 있는'이다
나는 순결한가? 순결하지 아니한가?

이런저런 가수와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영아가 그렇잖아요, 남자랑 자지 말고, 그래서 여자랑 같이요."
나는 여자다. 그리고 나는 여자를 사랑한다. 나는 여자랑 자고, 자고, 잘 것이다.
나는 순결한가? 순결하지 아니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그냥 놀러서 키스를 했다.
나는 순결한가? 순결하지 아니한가?

애인이 자주 섹스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도 '정기결합'은 한 적이 없다.
나는 순결한가? 순결하지 아니한가?

복합 성씨 순에 개포할 걸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 고려치 못한 몇몇 몇몇에나 쓰일 것 같은 말, 순결은 200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왜? 왜? 왜?
순결은 누구를 위해 지켜야 하는 가치인가? 반면에 누가 지켜야만 하는 가치인가?

가부장제의 속성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슬람권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이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의 다른 남성이 그 여성을 살해하는 관습이란다. 그렇게 여성을 살해하더라도 가버운 차림만을 받기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만 자행되는 일은 아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에게 '너는 이제 더러워 졌다'며 아버지가 다시 성폭력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몸 에 대한 소유권이 그녀의 가족(아버지, 남편, 오빠 등)에게 있다고 믿으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위대하다는 '피'의 순수성을 위하여 여성에게만 한 남성 계대가 결혼 관계로 묶여있는 남성파만 성관계를 가지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순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원치 않는 섹스를 하지 않는 것과,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순결처럼 고려치 못한 가치를 지킬 필요는 없어. 네 안에 그런 것들을 깨야 해." 상대에게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다. 가부장제 사회는 끊임없이 '너는 순결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일상에서는 또 정반대의 목소리를 들려야 한다. 성적 욕망을 가진 주체이면서 되는 존재인 동시에, 성적 대상화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네 이래저래 잘난 척 하지만 사실 아무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원치 않는 섹스를 하지 않는 것과 순결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나 말이다. 내가 당장 섹스를 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상태이든, 섹스를 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든, 순결하기 위해서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섹스가 하기 싫은 건 그냥 하기 싫은 거다.

나를 위하여

위에서 도발적이면서도 애매모호하고 대답할 수 없는, 또는 불편하기도 한 우문(愚問)들을 나열한 것은 그만큼 순결이라는 것이 무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다. 나의 성적 욕망과 실천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지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었고, 오묘한 나의 욕망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순결이라는 것들을 들어볼 것인지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순결한가/순결하지 않은가 하는 이분법적 구분 역시 불필요하다. 대답할 수 없는 경계의 자정들이 무수히 많을뿐더러, 그러하니 만큼 두 가지로 구분해내고 경계 짓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 섹스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

by_ 아이서

가을이 우두두두 뽀뽀한다. 우물은 맛이 아니다.

코알의 성인용품점 방문기!



성.인.용.품.점. 누구나 한 번쯤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았을 법한 장소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이곳에 직접 방문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있을지. 특히 여성이라면 주변의 눈치나 그곳에서 느껴지는 묘한 포스(?) 때문에 성인용품점에 들어가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코알, 그곳을 탐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장 낱짝을 잡고, 깊이 갈 천 구들을 모은 뒤, 신촌에 위치한 한 성인용품점으로 출발!

우리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성인용품점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성인용품점이라고 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이미지는, 허름한 건물,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가려진 유리창, 정육점처럼 빨간 색의 조명, 음흉한 변태 아저씨들 같은 것 뿐이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얀 형광등 조명 아래 가지런히 놓인 섹스토이들, 그리고 "어서 오세요."라고 답답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주인아저씨, 여자 셋이 성인용품점에 들어갔을 때의 주인아저씨가 당황할 모습을 기대했던건, 의외의 모습에 내가 오히려 당황하였다.

그곳에는 남성용 섹스토이와 여성용 섹스토이, 그 밖에도 콘돔, SM¹⁾ 용품, 속옷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여성용 섹스토이. 여성용 섹스토이 코너는 바이브레이터와 딜도²⁾, 그리고 애널³⁾용 제품 등이 있었다. 온라인 섹스토이샵에서는 토끼나 도라에몽 같이 깜찍한 디자인의 바이브레이터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그다지 귀여운 제품들이 없어서 아쉽다. 썩, 귀여운 제품들 대신, 요리보고 저리봐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관능적인 여성들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는 섹스토이의 겹포장이었다. 남성용품에 그러한 사진을 넣어놓은 것은 그들의 끝판(?)을 위한 것일 테니 그나마 이해가 간다(물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왜 여성용품에까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스스로 드러내고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이며, 여성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터부시 된다. 반면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들은 소위 관능적이고 뇌쇄적인 여성들, 성경험이 화려한 여성으로 간주되곤 한다.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이 뇌쇄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포장은 마치 자위를 하는 여성을 그러한 이분법 속에 가두어놓고 재단하는 것만 같았다. 여성의 자위에 사용하는 섹스토이에서조차도 이러한 가부장적 편견이 유효하다는 사실에 나는 실망감, 짜증 등 온갖 분노가 샘솟듯 솟아올랐다.

우리가 계속 두리번거리는 것을 본 주인아저씨는 우리에게 뭐 찾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쪽은 바이브레이터고, 이쪽은 애널용. 애널은 알죠?"라고 말하는 아저씨. 아저씨는 섹스토이는 겹포장만 봐서는 그 성능을 잘 알 수 없다며, 소음이 나지 않고 플라스틱이 아닌 고무 재질이라 잘 팔린다는 어느 바이브레이터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바이브레이터의 진동을 직접 손으로 느껴보니 오, 생각보다 세다.

섹스토이들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가운데, 나는 곳곳에서 그남들의 남근 추앙(!)의 기운을 마구 느꼈다. 여성용 섹스토이인 딜도는 남성의 페니스 모양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글 주글하고 요상한 그 모양을 왜 굳이 실사처럼 묘사하려 하는 건지. 여성의 오르가즘이 질 흡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상상력, 페니스의 크기나 굵기가 여성의 오르가즘을 불러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나는 훗, 하고 비웃어 주었다. 남성의 성기를 크게 만들도록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나온 제품들에는 하나같이 "Man Power" 같은 류의 이름이 붙어있었다. 남성의 페니스 크기는 곧 남성의 자존심이며 남성의 권력이라는 남근 이데올로기는 섹스토이 전반을 지배하는 듯 했다. 한편, 그남들의 강간 판타지가 섹스토이에까지도 투사되어 있다고 느껴져 영 불편하였다. 남성용 섹스토이 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팬티를 내리고 있는 모형이라든지, 여성의 나체모형에 'virgin' 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제품 등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강간 판타지를 드러내는 듯 했다.

아무튼 이래저래하여 나의 성인용품점 방문기는 끝을 맺었다. 이곳을 둘러보는 내내 "나는 나중에 여성주의적인 섹스토이샵 주인이 될 거야."라던 한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갔던 성인용품점 하나를 가지고 모든 성인용품점은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성인용품점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근 중심적이고 여성에게 불편함을 더해주는 섹스토이샵은 사라지고, 여성주의적이고 친 여성적인 섹스토이샵이 활성화되어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왜곡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불편함 없이 섹스토이샵을 이용하며, 보다 즐거운 밤을 보내기를 기대해본다. 오늘밤 나도, 으흐흐~

by_ 코알

매일매일 즐거운 밤을,

1)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의 약자. 기학적-피해학적 섹스를 말한다.

2) 진공으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섹스토이. 질에 흡입하기도 한다.

3) 질에 흡입하여 사용하는 섹스토이

4) 애널 섹스란 항문 흡입 섹스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항문에 흡입하여 자극을 주는 섹스토이를 지칭

여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 공결제 시범운을 2학기에도 진행합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교육문제에 관련한 학교 측의 답변에서, 월경 공결제를 다음 학기부터 학교 측에서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여름방학 동안 총학생회의 시범운영 방안에 관련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자리에서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고, 총학생회의 시범운영 원안 그대로 학교 측과 이행 협상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18대 총학생회에서는 2학기 동안도 월경 공결제 시범운을을 계속할 예정이고, 월경공결제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도 학교 측과 함께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시작으로 월경 공결제 시범운에 연세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석계 다운받는 곳 : 총학생회 홈페이지 www.yonsei.ac.kr/~ysfem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실

여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공결제